

산란계산업 “가벼워야 산다”

| 동향 |

산지 난가는 명절을 몇일 앞두고 식용부적합한알의 사용 문제가 일부 TV와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계란에 대한 혐오감이 형성되어 난가는 하락하였다. 연중 설 명절과 추석이 계란 소비에 최대 수요기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수급상황을 보이자 산란계농가에서는 크게 증가한 사육수수의 현실적 체감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자성적인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540여만수가 매몰되고, 산란중계장에 사고로 종계 3만5천수가 폐사되고, MS의 발생으로 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에도 '14년 산란계병아리 입식수수는 44천만수로 평년 산란계 입식수수 35천수 대비 26%를 크게 초과하였다. 산란계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을 예상하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난가는 연세·얼마만큼 인하 하느냐가 관건으로 산란계농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자료분석 |

지난 2월 산란중계 입식마리수는 69,280수로 전월(101,280수)대비 31.9%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5,160수)대비 1237.2% 증가하였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3,350천수로 전월(4,352천수)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3,842천수)대비 12.8% 감소하였다. 1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33,802톤으로 전월(34,948톤)대비 3.3%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33,802톤)과는 동일하였다. 산란사료는 204,200톤으로 전월(208,073톤)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192,207톤)대비 6.2% 증가하였다. 1월 산란중계사료는 7,039톤으로 전월(5,994톤)대비 17.4%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5,848톤)대비 20.4% 증가하였다. 한편 1월 산란성계육은 2,192천수로 전월(2,084천수)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2,532천수)대비 13.4% 감소하였다. 올해 4/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총마리수는 6,767만수로 전분기(6,526만수)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육수수는 5,038만수로 전분기(4,881만수)대비 3.2% 증가하였으며, 3~6개월 병아리 사육수수는 801만수로 전분기(760만수)대비 5.4% 증가하였으며, 3개월미만 사육수수는 929만수로 전분기(885만수)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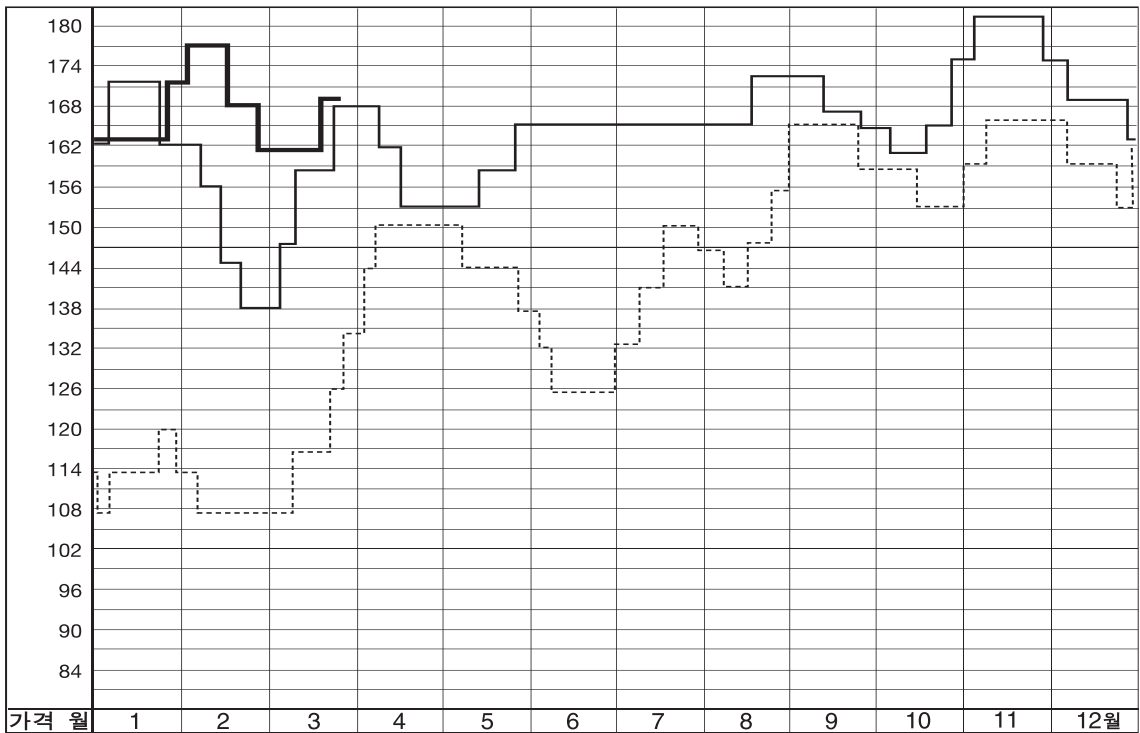
| 전망 |

계란가격이 생산비 이상을 유지하면서 산란계병아리 입식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인해 산란계산업은 사육수수 7천만수대 진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됨과 동시에 끝없는 불황에 치달고 있는 중이다. 산란계농가들은 계란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불안한 상황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닭을 입식해 농장수익을 높이겠다는 막연한 계산으로 사육규모를 초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란계농장들은 무리한 확장으로 외부 지출비용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계란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산란계농장에 치명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란계산업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마다 산란성계육 출하를 한 달씩 앞당기고 산란계 병아리 입식을 뒤로 연장하는 등 산란계농장 몸집을 줄이기 위한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무분별한 농장 확장 또한 신축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의 계란전망

이상목 차장
경영정책국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3-- 2014- 2015-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015	101,280	4,352	33.2	204.2	1,450	1,645
2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2015	69,000	3,350			1,379	1,711
3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2015						
4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2015						
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2015						
6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15						

7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2015						
8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45,000	3,418	29.9	174.4	1,450	1,679
	2015						
9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44,960	3,460	31.7	174.6	1,450	1,691
	2015						
10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22,880	3,700	33.4	188.9	1,406	1,647
	2015						
11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76,400	3,754	30.3	182.7	1,450	1,804
	2015						
12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29,600	4,536	34.9	208.1	1,450	1,692
	2015						
계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536,380	44,321	356.3	2,154.0	1,346	1,643
	2015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